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장미가 필 때마다

중 양현관을 지나 연구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000 이름만 바라보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어쩔 수 없이 학과 사무실을 찾았다. 낯설지 않은 사무실 분위기와 눈에 익숙한 풍경이다. 내 집처럼, 그곳을 드나들며 공부하던 시절이

그런데 뒷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000 선생님의 존함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000이라는 낯선 이름이 내 눈을 가득 채운다. 그제야 머리를 스쳐 간 단어가 있다. 바로 '아, 장년?' 아무리 정신없이 살

자신을 책망하며 서둘러 과사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어, 박 선생 아니야? 오랜만이네?"라며 악수를 정하는 000 선생님의 얼마 남지 않은 흰머리가 정겹다. 준비되지 않은 어정쩡한 만남은 몇 마디의 형식적인 대화

로 심겁게 끌이 났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 선생님의 장년퇴임이라는 습습한 풍경 뒤에 파노라마는 아련한 미소에 잠기게 한다. 그해에도 장미는 흐드러지게 피었다. 나른하게 졸리는 눈을 부여잡던 5, 6교시 수업이 떠오른다.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이 되면, 인문대 뒤편 계단 주위 담배 연기는 오소리 잡기에 충분했다. 3층 강의실 창가에 앉아 계단 주위를 내려다보면, 사골사골 사람 사는 냄새가 스멀스멀 우리의 코를 자극했다. 그 냄새는 바로 커피다. 담배 연기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남학생을 지나 동전 하나로 달달한 커피 한 모금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이처럼 사대의 아픔을 뜻조하게 피워 돌던 자판기 커피와 담배 세대의 아련함은 이미 무심한 세월의 강이 되어 버렸다.

청문 너머 장미가 필 때마다 뾰족 뾰족 뾰족

나른하게 널브러진 영혼은 콧노래를 부어잡고 어찌어찌 버티다가 달콤한 10분간 휴식에 응기응기 뜨거워 앉아 먼 산 바라보며 나누는 몽글몽글 담배 연기는 몽글몽글 깃발로 사리되어 내리고 달달한 커피 자판기 포르르 흐르는 눈을 가득 흐르던 모금 일기상은 무심한 세월의 강이 되어 흐른다

-박여범, '장미가 필 때마다' 전문-

장미가 흐드러지게 핀 오월에 대한 아련한 이야기 주머니를 시로, 박여범, '장미가 필 때마다' 전문이다. 그 오월, 시인은 평생 배움의 터전인 선생님을 만났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로 만나 많은 꾸지람과 깨우침을 주신 선생님이 그리워 시인의 발길은 캠퍼스로 향했다. 그

시절이나 지금도 5월도, 장미도 한창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예전처럼 선생님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밀줄이 그어지니 마음이 쓰러온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 무심한 세월이었다. 무심함보다 어쩌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 결국 이 시간을 가져왔는지 모른다. 무심한 세월과의 게임에서 대패한 기분이다. 그렇지만, '이미 넘쳐 버린 물'이라 자책하기엔 되돌리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 버렸다.

장미가 피는 5월이면, 스멀스멀 '그리움'이라는 녀석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분위기를 올려놓는다. 지척에 두고도, 뭐 그리 바쁘다고 찾아뵙지 못했을까? 늘 그 자리에서 믿음직스럽게 서 계셔서 태양을 가려주는 우산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만 했을까? 밀려오는 후회민이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장미가 필 때마다, 장미가 필 때마다, 달달한 커피 자판기 포르르 흐르는 눈을 가득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사대의 아픔을 뜻조하게 피우며 아련한 기억의 자리마다 무심한 세월의 강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선생님과 함께 방긋 웃으며 멋진 기념사진 한 장 남길 장미 향기가 득한 5월의 캠퍼스는 지금도 그대로일까?

사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밝은 소식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실무 관계자들이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까닭이다. 투자 규모로 보나 도민의 기대로 보나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발전 가속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그같은 소식은 저번에 정부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을 생각나게 한다.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거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식품클러스터에 전체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중 60%에 해당하는 90개의 기업을 연내에 유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게 온전히 실현됐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번엔 밝은 소식을 전해오면서 익산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잘 나가고 있음이 확인돼 반갑다. 올해 분양 계약이 활발하다니 말이다. 5개월 만에 지난해 대비 68%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은 폭풍 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의 식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의 식품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에 전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은 기본 좋은 현상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북도와 익산시에 주고픈 말은 남아 있다. 본래의 청사진과 비교하면 아직 발전 속도감이 낮다. 도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 수준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 번 말했거니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발전과 함께 전북의 발전도 약속하고 있다.

도민들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 본래 희망했던 바 그대로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돼 있을 게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명실공히 국가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할 터이다. 대통령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트 지역 공약이 실현되면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 한다. 실력 발휘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욱 속도감 있게 발전하리라는 믿음이 다.

지역 발전은 증액된 예산확보가 답이다

지역 발전은 예산 증액 확보가 답이다.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 테지만 역사나 최고의 해법은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무슨 일이고 돈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뜻이 높고 열망이 뜨겁다 해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에 보통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예전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산 증액 확보는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나서서 이쪽의 관심사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도내 여러 기관들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트 사업이며 새만금 순환 도로며 신공항 건설이며 내부 개발 사업 등 그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

해 좀 더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럭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도민에게 여러 차례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된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을 안고 있는 세월이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잠잠한 행보는 미흡치 않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 논리를 정밀하게 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가을과 연말에 국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잘 설득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계 별의 날, 박물관 진열된 별통



세계 끝없는 별의 날(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민속 박물관에 오래된 별통이 전시돼 있다. 올해 세 번째로 맞는 별의 날, 슬로베니아에서는 양봉 농가의 생계 지원과 양질의 제품 보급을 위해 양봉 농가가 채택한 양봉 생산과 우수사례를 다루는 행사들이 열렸다.

독자제언

노인교통사고 예방 “조심조심 안부전화”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 초고령사회 진입단계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증가 추세이며 노인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님께 차조심, 운전조심 안부전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자녀의 부모님 교통안전 안부전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하는 것이다. 봄철 이른 시간부터 활동하기 위해 나서는 노인들이 차도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 역시 증가하고 농촌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반면에 과속 등 법규위반 차량으로 인해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녹색신호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중 빨간불로 바뀌기 전 횡단을 마치지 못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다. 고령일수록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낮아 위기 상황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야간·새벽시간이나 비가 와서 어두울 때 밝은 색 옷입고 보행하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예서 좌우 차가 오는지 잘 확인하고 건너기 △차도를 걸거나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규칙 내용을 “조심조심 안부전화 캠페인”을 통해 부모님께 알려드리면서 효도도 하고 교통안전도 지키는 1석2조의 효과로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신서윤 고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people who give courage and hop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